

## 고하아카데미 창립 및 창립기념 세미나 개최

- ▷ 차세대 청년지도자양성을 위한 고하아카데미 창립
- ▷ 고하의 청년정신을 계승하여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 양성
- ▷ 청년 세종과 청년 고하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기초강연
- ▷ "고하의 청년정신을 통한 국민통합과 선진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청년대표 6명의 기초발제 및 원탁토론

김동길 기자 kmnews0310@naver.com

등록 2026.01.01 08:22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 양성

[국민연합뉴스/김동길 대기자] = 2025년 12월 30일 오후 3시-6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고하의 청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차세대 청년지도자를 양성하고, 고하의 사상을 국민대통합의 기치로 하여, 선진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시대정신으로 삼고자 하는 창립목적을 표방한 고하아카데미가 창립식을 열고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송재혁 고하아카데미 설립추진위원의 경과보고에 이어, 이주연 박사(동북아연구재단 연구위원)를 고하아카데미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주연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고하의 사상을 현창·계승·발전시키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토론하고 학습하여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세우가는 주도적 역할 당부

고하자유민주연구원 현병철 원장은 축사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국민통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선진 민주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고하기념사업회 산하 고하자유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하아카데미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박현모교수(세종국가경영원장)가 청년 세종의 리더십에 대해, "청년은 언제 삶의 주인이 되는가?-세종루터·송진우가 맞이한 결정적 순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고, 신명호교수(부경대 사학과 교수)가 청년 고하의 리더십에 대해, "청년 고하의 리더십의 형성과 특징-합리적 현실을 지향하는 합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ESG, 국제관계 등의 연구를 통한 글로벌화

기조강연이 끝난 후,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청년 6명이, "고하의 청년정신을 통한 국민통합과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대주제로, 고하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기조발제를 하였다. 발제자 및 세부주제는, 김대홍(YC청년회의 청년위원장) "대한민국 청년의 현주소", 여유나(부경대 대학원) "청년 고하와 3.1독립운동", 김명재(부경대 대학원) "청년 고하의 언론관", 김종복(화성시의회 의원) "청년 고하의 정치 사상과 국민통합", 문상명(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청년 고하의 인권사상과 여권신장", 안동현(국가청년회의의 의장) "청년 고하의 국제적 공생주의"이며, 기조발제를 한 후에 6명이 함께하는 원탁 종합토론을 하면서 고하사상의 21세기화, 글로벌화, 청년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세우는 청년들 역할 기대

박영준박사(안세재단 이사장)는 이들의 발제와 토론내용에 대한 총평을 하면서, 고하의 나라사랑, 독립정신을 표본으로 한 미래의 선진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청년들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치하했다.

고하아카데미는 국가청년회의, YC청년회의, 공정과상식포럼, (사)4월회 등의 단체에 소속된 청년들이 연대하여, 그들이 고하아카데미 운영의 중심이 되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자매단체 및 민간단위의 역사·교육·문화·예술 등 단체와의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고하 사상, 한국근·현대사, 국민소통·통합, 청년세대, 양극화, ESG, 국제관계 등의 연구를 통한 글로벌화·전국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식에는 전국의 여러 청년조직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참석하여 고하의 청년정신을 기렸다. 주요 참석 인사로는,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 박찬욱 서울대학교 전 총장대행, 황희만 MBC 전 부사장, 박영준 안세재단 이사장, 송진한 고하송진우기념관장, 석동현 민주평통 전 사무처장, 이영일 전 의원, 심광언 충청구국포럼 명예총재, 이청승 세종문화회관 전 사장,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 송동섭 동남보건대 이사장, 이기윤 소설가, 강수경 덕성여대 전 총장, 이기종 경희대 명예교수, 조평규 중국 엔달그룹 고문, 이동탁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사무총장, 정용상 (사)4월회 회장, 최경국 명지대 명예교수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